

<감사의 글>

여러분이 희망찬 미래입니다!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의 회향을 맞아, 생계와 소임보다 우선하여 백년대계를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100인 위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오랜동안 어려워했던 종단의 숙원과 긴급한 현안들을 현실감있게 꺼내놓고, 공의로써 지혜로운 해결을 찾도록 헌신하신 도법스님과 지홍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진행이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세심하게 이끌어온 일감스님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대중공사는 한국불교의 거울입니다. 지난 1년간 아홉 차례의 대중공사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보았습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무관심, 종단과 승단에 대한 불신 가중, 종단과 사찰의 사회적 실천 부족 등 한국불교의 냉엄한 현실을 마주보았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지혜로운 마음이 되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바라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새집을 짓는 것이 아닌 헌집을 리모델링하는 어려운 불사로 여기고, 종단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5°만 바로잡자는 심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한해에 5°씩 매년 개선해 나간다면 5년 후, 10년 20년 후에는 우리가 걸아가는 바로 정면에 종단의 희망과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대중공사 평가 결과를 보면 많은 분들이 종단 책임의식이 높아졌고, 큰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참여하신 사부대중 스스로가 한국불교의 주인임을 자처하고, 대중공사를 모든 생명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는 진중한 탁마의 장으로 삼고 알찬 한국불교의 씨앗을 뿌렸던 것이라 할 것입니다.

대중공사는 우리 사회 소통의 대안입니다. 출·재가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대화와 토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소통의 자리가 부족해 평소 듣기 어려웠던 사부대중들의 의견을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 크게 자랑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100인 위원들이 경험을 살려 한국불교의 주인으로써 가정과 직장, 사찰과 단체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대중공사의 꽃을 피워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내년에는 사부대중 대중공사가 전국으로 열기를 더하여 교구본사와 지역에서도 만개하기를 희망합니다.

한분 한분이 우리 한국불교의 희망찬 미래이며, 우리 사회 소통의 꽃임을 유념하셔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심과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기2559(2015)년 12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